

## 【 국내금융 뉴스 】

### 6월 고용동향 민간부문 중심 견조한 고용회복세 지속

- 2010년 6월 취업자수는 기저효과 등으로 5월에 비해서는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약 31만명 증가하면서 회복세가 지속됨.
  - 민간부문 취업자수는 경기 개선에 따른 민간 기업들의 구인수요가 반영되어 전년동월대비 약 45만명의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함.
  - 공공부문 취업자수는 작년 6월부터 크게 늘어난 희망근로 등의 정부 일자리 사업 규모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됨에 따라 크게 감소함.
  
- 상용직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고용의 질도 지속적으로 개선됨.
  - 상용직이 4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70만명 이상 증가하고 임금 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도 크게 상승하여 고용안정성이 제고됨.
  - 단시간 근로자가 증가했으나 이들 중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단시간 근로자수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
  
- 전반적인 고용 여건은 개선되었으나 청년층의 고용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.
  - 정부 일자리 사업 규모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은 59.8%로 전년동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실업률은 3.5%로 전년동월대비 0.4%p 하락함.
  - 단, 청년층의 경우 실업률은 전년동월에 비해 소폭 하락했으나 고용률이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고용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.
  
- 하반기에도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30만명을 웃도는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.
  -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제조업 가동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소비도 안정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취업자수도 증가할 전망이다.
  - 다만, 고용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청년 등 취약계층의 어려운 고용 여건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일자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.

(2010년 6월 고용동향,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, 7/14)